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기행

섬 전체가 공원인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와 그린게이블스(Green Gables)를 방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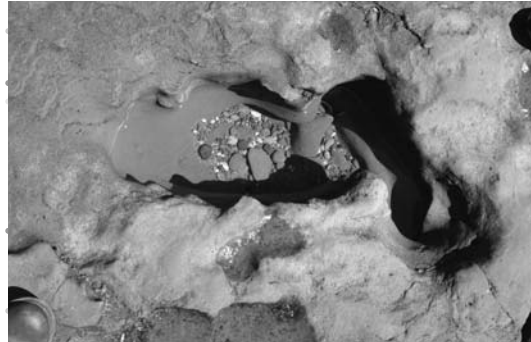
송 은 경
데이비슨초등학교 도서미디어 교사
okjoo07@gmail.com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대하여

프린스 에드워드섬(Prince Edward Island: PEI로도 불리움)은 북쪽으로는 세인트 로렌스 만, 남쪽으로는 노스엄버랜드(Northumberland) 해협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 곳은 들고 나는 바닷물로 인해 구비구비 절묘하게 깎인 붉은 해안선과 초록색 융단같은 대지가 파란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에 대비되어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곳으로 ‘휴일의 섬(Holiday Island)’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흙이 붉은 이유는 이 섬이 아주 오래 전에 부드러운 붉은 색 사암으로 된 퇴적기반암 위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옥한 붉은 흙이 생긴 것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핑크 빛과 붉은 빛 해변은 비교적 따스한 바닷물로 인해 아주 멋지고 낭만적인 해변으로 꼽힌다. 이 섬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비옥한 모래흙과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길고 추운 겨울로 인해 정화된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최상급의 감자인데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식 재배, 저장, 운반방법으로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



〈PEI 해변의 바위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역사

약 만년전 이 섬에 최초로 사람들이 거주하였는데 그 때에는 이 섬이 캐나다 본토와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량원이었던 동물들의 떼를 따라 사냥하였다. 5,000년전 바다수면이 올라오면서 섬이 되었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1,000년전에 이곳에 이미 원주민인 미맥(Micmac)족이 살고 있었다.

1535년에 프랑스인 탐험가 자크 카티에가 이 섬에 도착한 후 17세기에 프랑스인들과 어부들이 많이 이 섬을 방문하였으나 18세기 중순까지는 아직 유럽인들은 영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모래언덕(sand dune) 때문에 큰 배가 만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720년부터 프랑스인들이 살기 시작하여 그 후 20년동안 어항인 세인트 피터스를 중심으로 약 300~450명이 섬 전체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항구주변에 거주하면서 카누로 여행하였다.

1755년 뉴브런즈윅주의 펀디만에 살던 아카디언*들이 영국에 의해 추방되어 이 섬으로 이주하게 되자 점차 인구가 5,000명으로 늘었다. 1758년 이 섬에 불란서가 세운 도시인 루이스버그를 점령한 영국은 이 섬의 불란서 식민지 이주민들을 추방하여 아카디언 300명만 이 섬에 남게 되었다. 1763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정식으로 영국의 소유가 된다. 18세기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모험심 많은 빅토리아 영국귀족들의 은둔처로도 각광을 받았다. 1798년 이 섬의 명칭은 St. John's Island에서 Prince Edward Island로 개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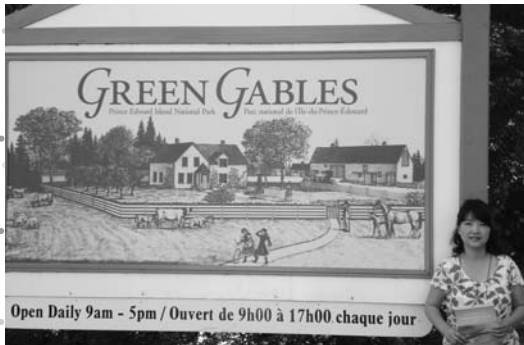
〈카벤디시 해변가〉

* 17세기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섬, 미국의 메인주 등에 걸쳐 있던 아카디아에 살던 불란서 식민지 이주자들의 후손을 이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의 네째아들이며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인 Prince Edward Augustus, the Duke of Kent가 1799년 노바스코시아의 주청도시인 핼리팩스에서 영국군을 지휘하고 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다.

1867년 캐나다연방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노바 스코시아와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등 3개 주들이 1864년에 이를 위한 준비단계인 Charlottetown Conference 를 주최한다. 그러나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뉴브런즈윅과 노바스코시아가 퀴벵과 연결되는 철도의 설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캐나다 연방 가입은 1873년에야 이루어진다.

Anne of Green Gables(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그린 게이블스 하우스)



〈그린게이블스 현판앞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필자는 소녀적 읽었던 소설 빨간머리 앤 (Anne of Green Gables)의 배경이 되었고 그 소설의 작가인 L. M. Montgomery(1874-1942)가 어린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린 게이블스 농장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설레고 있었다. 이 소설로 몽고메리 여사는 ‘영어로 씌여진 소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 소년소녀중의 하나인 앤’을 탄생시킨 작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애

독자들의 성원에 따라 주인공인 앤 설리가 53세가 될 때까지 총 7권의 속편을 썼다.

그 소설이 어린 시절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작가가 책속에서 묘사한 수많은 배경들이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마치 그곳에 가본 것 같이, 그 숲속에서 나는 나무 향내와 다리를 건너는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작가는 배경묘사를 참 잘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 소설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레이철 린드 아주머니의 집은 아본리 중심도로가 좁아지다가 끝나는 조그만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곳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숲속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이 그 집 앞을 흘러 지나고 있었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이 소설이 아직까지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배경 외에도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과 줄거리이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노바 스코시아 의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던 주인공 소녀 앤은 고아원을 떠나 평생 살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학교

에 다니기를 꿈꾼다. 그러던 어느날 앤은 고아원 원장으로부터 그녀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기차에 몸을 싣고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본리 역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린 게이블스의 주인인 마릴리아주머니와 매튜아저씨는 사실은 농사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원했던 것이었다. 소개한 사람의 실수로 남자아이 대신 앤이 오게 된 것인데 남자아이를 픽업하러 온 매튜아저씨는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앤을 보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앤을 집으로 데려간다.



〈그린게이블스 내부전경〉

하룻 밤만 재우고 앤을 고아원에 되돌려 보내려 했던 매튜의 누나 마릴라는 완고하고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어진 사람이었다. 앤을 데려다가 많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게 하겠다고 제의하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어보이는 동네여자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앤 사이에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흥미롭게 전개된다.



〈앤의 갈래머리를 하고〉

이 소설에서 앤은 창백한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술이 없는 붉은 색 머리를 양쪽으로 뿔아 내린 모습으로 묘사된다. 자신의 붉은 머리와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 앤, 하지만 똑똑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불행한 처지에도 순수하고 밝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자라가는 11세 소녀 앤의 이야기를 읽고 이 시대의 소년 소녀들이 공감을 느끼고 용기를 얻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방문에서 알게 된 사실은 작가 엘 엠 몽고메리가 실제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까운 곳에 살던 조부의 사촌 데이빗 맥닐과 마가렛 맥닐의 집 그린 게이블스 농장과 그 근처 숲속과 오솔길, 호수등에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 앤이 마릴리아주머니와 매튜아저씨와 함께 살았던 그린 게이블스는 작가의 친척집을 거의 그대로 묘사한 것이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그린게이블스와 그에 딸린 정원 및 숲속, 특히 작가가 소설속에서 묘사했던 ‘반짝이는 물의 호수(Lake of Shining Waters)’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솔길(Lover’s Lane)’ 등을 직접 보고 걸으며 필자는 작가 몽고메리여사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수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소설속의 주인공인 앤은 작가인 몽고메리여사를 많이 닮은 것 같았

다. 100여년전 작가가 거닐었던 정원과 오솔길, 나무들, 호수 등이 자연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다.

캐나다의 공원국은 현재와 미래의 캐나다인들을 위하여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린게이블스의 집과 대지는 몽고메리여사가 빨간머리 앤의 소설에서 묘사한 대로 1800년대 말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풍으로 복구시켜 놓았고 장식해 놓았다.



〈그린게이블스 내부전경〉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10세-15세 가량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이 책을 읽고 시간이 되시면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그린 게이블스를 한번쯤 방문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너무나 바쁜 스케줄속에서 여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설에 담겨있는 시적인 정서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린 게이블스 주변의 가볼만한 곳들



〈몽고메리여사와 남편의 묘지〉

그린게이블스는 세인트 로렌스만이 보이는 카벤디시의 6번 도로 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몽고메리 여사가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집의 터가 남아 있고, 우체국장이었던 조부가 근무하던 우체국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다. 아담한 우체국의 한 쪽은 몽고메리여사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우체국에서 엽서를 보내니 Anne of Green Gables라는 도장을 찍어준다. 또한 그 곳에서 얼마 안 가서 6번과 13번 도로가 만나는 곳에 L. M. Montgomery's Grave라는 묘지가 있

는데, 이 곳에는 몽고메리여사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목사님이 합장된 무덤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녀의 조부와 사촌들의 묘지도 이 곳에 함께 있다.

근처에는 Avonlea: Village of Anne of Green Gables 라는 민속촌이 있는데, 이 곳에는 소설에 나오는 아본리 기차역과 앤이 살던 그린 게이블스 주변 마을의 가게, 학교, 정원, 교회, 외양간 등을

재현해 놓았고 관광객들은 표를 사면 하루 종일 음악회, 댄스, 마을 장터, 소 짓짜기 등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정말 앤의 팬이라면 써머사이드(Summerside)시에 가서 이 소설을 무대로 옮겨 재현한 ‘앤과 길버트’라는 2시간 반 짜리 뮤지컬도 볼 수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떠나며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인공적인 흔적이 거의 없는 섬 전체가 천연의 공원이다. 붉은 모래흙이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모래 언덕, 모래 기둥, 붉은 색 사암이 오랜 세월동안 비 바람으로 인해 이제는 구멍이 송송 나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색색깔의 작은 조약돌들이 물 속에 잠겨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산이 없이 넓다란 초록색 융단같은 구릉, 곳곳에 피어있는 노란색, 보라색 들꽃들이 한편의 풍경화인 양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우드 아일랜드에서 노바 스코시아 로 떠나는 카 페리를 타고 뒤돌아 본 프린스 에드워드 섬 끝에는 하얀색 몸통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 등대가 초록색 잔디와 붉은 흙, 파란색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앙증맞게 서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꼭 찾고 싶은 곳이다. (㉠)

